

가정을 지키는 자

1.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 어머니- 성령
3. 아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침례교회, 윤 성목 목사
<http://av1611.net>

01. 하나님 아버지(I)

말씀: 딤후1:2

요절: 딤후1:2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자랑스런 한 분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친근한 이름은 단연 아바,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버지란 매우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개념은 주로 혈통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란 말은 결코 혈통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아버지란 개념은 혈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아버지)입니다. 야발은 [장막을 치는 자들과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father)이 되었고](창4:20)라고 말합니다. 야발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유발입니다. 그는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창4:21). 오늘날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바하’를 떠올리지만 유발은 진정으로 음악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시조, 처음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개척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것의 설립자나 개척자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윌리엄 캐리, 미국의 국부(國父) 조지 워싱턴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요8:44). 거짓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아담이 거짓의 아버가 아닙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기 때문이라.](요8:44).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난 자는 누구나 진리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더라.](마11:19b)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요, 영들의 아버지가 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히12:9).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의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영들의 아버지 없이 영적 출생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외없이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불리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시이십니다. [이제 이 약속들은 / 주께서 /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씨라 하셨으니 **이 씨는 곧 그리스도시라.**](갈3:16).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요일3:9). 여기서 “그분의 씨”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 ‘말씀들’을 씨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8:11)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1:23에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씨를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씨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1:23)고 하심으로 말씀이 씨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요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버지의 씨가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없이 그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복자(遺腹子)라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아(fatherless)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고, 어디론가 떠나 버릴 수도 있고, 영원히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❶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약1:17). 나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이시기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있을 때 주님은 [빛이 있으라](창1:3)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게 하는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시기에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딤후6:16). 나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살전5:5). [이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엡5:8).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내가 선

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심에 취해서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행위나 업적이나 일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요12:36a). 빛이 된 후에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 들였습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모두 걷히고 환히 밝아졌습니까? 그렇다면 빛으로서 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속, 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이 빛의 자녀 행세를 하는 일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1:17).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끝 부분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6:13).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men.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직역)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라면 그 자녀들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달이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듯이, 영광의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세상을 비추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아들)이신 그분을 보십시오.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獨生)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b)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히1:3a).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 너희가 / 가졌으니]**(약2:1a)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드러내어서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안에서부터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고, 세상의 무엇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가 침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가장 사악한 탐심이요, 교만이요, 도둑질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마귀를 제외한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시19:1).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요5:44).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미덕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⑥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을 낳으신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히12:9). 육체의 아버지들은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분이십니다. 영은 외모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요4:24).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들이 지음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나 마귀들과는 다릅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처럼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낳으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영들이 분명하지만(히1:7)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역시 영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갈4:6). *롬8:14-15참조.

영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 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전15:45).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들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을 때 물로 심판하심으로 멸절하셨습니다. 이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버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④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라.](고후1:3).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엡2:4). 여러분의 아버지는 엄하고 무자비합니까? 아니면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풍성히 베푸셨습니다. 긍휼이란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 할 때 뿐 아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주님은 묵묵히 그 현장에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주님께서 칼을 뽑아 들었다면 발람의 나귀가 천 마리가 있다 해도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심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받을 손해와 슬픔을 미리 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사생아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영혼을 두고 도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생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거짓 평안을 주님의 긍휼로 생각하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앞 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어떤 시인의 양심보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훨씬 더 예민하며, 주님의 손길은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⑤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눅11:13). 여러분과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누구도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기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church fathers(교부), fathers(신부)는 성경 상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일컫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23:9). 세상의 종교인들, 철학자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⑥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임이라.] (사9:6).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며,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I Am THAT I AM(출3:14)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십니다.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란 사실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벧후3:8). 아버지께서 영존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낳음을 받은 우리 또한 영존하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말은 낳은 자란 말입니다. BORN은 어머니에게서 신체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고 BEGAT은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ONLY BEGOTTEN SO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7번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롬15:6, 고후1:3, 고후11:31, 엡1:3, 엡3:14, 골1:3, 벧전1:3)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생명을 가지며, 동일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한 아들만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아들을 가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며, 만인의 주(主)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사탄입니다.

성경은 항상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조하며, 선택을 요구합니다.

-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인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나누어지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마12:26).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인 반면 사탄의 왕국은 「죄의 왕국」(SINFUL KINGDOM)입니다. 이 왕국은 완전히 멸해 질 것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SINFUL KINGDOM)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멸하리라...](암9:8a).

-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8:44a).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 납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 납니까?

-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식이요, 노아의 자식이란 점에서 한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남남입니다. 마귀의 형제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맏아들이십니다.

-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사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의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가

정에서 아버지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요17:11),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요17:25)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나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일의 기초는 의(義)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자녀들의 불법과 범죄에 대해서 의로 징계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벌을 줄 것이로되](삼하7:14).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긍휼을 빼앗지는 아니하십니다(삼하7:15).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 자기들이 기뻐하는대로(after their pleasure) 매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for our profit)을 위해 하십니다(히12:10).

●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 풀을 입히시는 그분께서 자녀들을 굶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절대 굶지 않습니까?」-답은 Yes입니다. 현재 굶는 사람들은? 오늘날 굶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는 마치 광야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거부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 외의 어떤 해악도 미치지 않게 하시며, 까닭없는 저주를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긍휼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음이라.](엡2:18). 한민족의 정서인 한(恨)을 잘 노래한 김소월이란 시인의 초혼이란 시 가운데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란 절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갖다 바친다 해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여러분은 믿을만합니까? 자녀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나아 올 수 있습니까?

02. 아내와 어머니

말씀: 디도서2:3-5

요절: 디도서2:3-5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 개의 조직체를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국가며, 마지막은 지역 교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조직체로서 모든 인간이 마땅히 속해야만 합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 에라도 속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 의 아니게 국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방당하거나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망명자이거나 난민입니다. 자기 조국이 없는 사람들, 조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환과 슬픔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불법 노동자거나 이민자들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속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던지 죽음으로써 고아가 된 경우입니다. 살기 어렵다고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도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아나 미아들의 불행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나 가정을 깨뜨려 버렸거나 깨진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만 현대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자기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독신(獨身)을 고집하는 크리스천들의 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지역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국가는 불신자들 신자들 구분 없이 속할 수 있지만 지역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결코 속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도 지역 교회에 출석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지역 교회의 성도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어떤 이유로 지역 교회에 속하지 못한 성도들은 더욱 비참합니다.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님은 지역 교회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중 가정과 교회는 매우 흡사합니다. 지역 교회는 가정을 튼튼히 세워줍니다. 반면 믿음의 가정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가정에는 윤리가 있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윤리는 성경의 교리와 동일한 영감, 동일한 권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목사 앞에서는 Yes, 판사 앞에서는 No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에서 특히 자매, 즉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을 펴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있다는 자체 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는 자니라.』(잠18:22). 아내가 있는 모든 남자는 이미 주님께 한 가지 은총은 받은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께로부터 오느니라.』(잠19:14). 결혼을 앞둔 남자들은 분별 있는 아내를 얻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이삭은 일생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라헬과 결혼하고자 피를 부렸던 야곱의 인생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질투로 싸움을 벌이고 종들까지 시켜서 자식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줄지에 남편이 아니라 자식을 만드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창세기 30:1,2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니 야곱의 진노가 라헬을 향하여 불같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당신으로 하여금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니』 야곱의 가정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창2:18-24).

모든 성도가 한 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가정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자기가 가정을 이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가정의 설립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창2:18). 여기서 주님은 남자를 지으신 후에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매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더라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홀로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상태의 남자였던 아담조차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면 타락한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것은 날 때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매우 좋지 않는 일입니다.

둘째,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를 위해서입니다. 20세기의 타락한 feminist들이 여자의 권리를 외쳐도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¹⁾ 어떤 여자도 자기의 이름

(family name)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 여자의 역할은 합당한 협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두개골에서 취하지 않았습다. 남자의 발가락에서 취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는 여자로서 하여금 helper의 지위를 부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자는 가정에서 decision maker가 아닙니다. 의사 결정권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decision making(의사 결정)을 잘 하도록 돕는 helper입니다. 오늘날 아내들이 helper의 역할을 넘어서 남편의 director(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월권이요, 반역입니다. 나의 조언과 의사가 수용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helper의 지위가 변하거나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helper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됩니다. helper에게 합당한 지위와 힘을 주지 않는 남편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엔지니어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아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해도 helper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참모나 조력자의 조언과 도움 없이 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자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남편을 능가하는 점수를 주지도 않습니다.

•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저마다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엡 5:33).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종에게 존경받는 주인이 없고,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육신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그 때마다 조금 있던 존경심마저 사라지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할만한 점이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란 이유로 존경해야 합니다.

흔히 여자들은 현재의 현실보다 가상의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결혼 안했으면 더 잘 살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주님, 이보다 더한 놈뎡이 안 만난 것만 해도 제게는 넘치는 복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술주정뱅이요, 도박과 마약을 하지 않고, 돈에 눈이 뒤집혀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자녀들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모든 아내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

1) Adam--Madam, Man--Woman, Mr. -- Mrs. Miss -- 잃어버린, 과녁을 잃어버린, 그리워하다(v).

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나의 남편이 자신의 인생에 나를 필요로 하여 결혼을 요청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는가?

●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낮추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엡5:22). 이 말씀에는 복종의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높여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낮추어야 하는가?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복종할만큼 낮추십시오. 복종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5:24). 이 점에서 가장 본을 보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였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며 순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말들이 되느니라.』(벧전3:5,6). 순례의 길에서 함께 죄를 짓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던 그녀였지만 남편 아브라함에게만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으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엡5:23).

● **아내는 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벧전3:7). 올바르지 못한 부부 관계는 영적 생활을 막습니다(벧전3:7). 남편들이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지 않고 함부로 다룰 때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 생활이 막히면 속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아내를 양철 그릇 다루듯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이 다루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verbal abuse(언어 모독)!! 이것은 모독이요, 수치입니다. 말을 각별히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여자를 super woman 아니면 ultra girl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가사도 돌보아야 하고, 자녀도 낳아야 하고, 키워야 하고 1인 3-4역은 보통입니다. 그때마다 합당한 애정을 나누어주어야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성경을 몇 줄 읽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아내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일은 아내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골3:19).

● **올바르지 못한 부부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합니다(딤후2:4-5).**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관계, 자녀 교육,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주의깊게 살핍니다.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되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딤후2:4). 교회 내의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맑은 정신』(sober)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비단 젊은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Be sober!!(벧전5:8)-정신을 차리라.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sober) 기도하라.』(벧전4:7). 매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마음이 분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갓난 아기를 낳아 두고 대학을 어디에 보낼 것인지 걱정하는 새댁의 얼빠진 정신이나 결혼해 놓고도 아직도 처녀인양 싸돌아 다니는 여자들을 엄히 타일러 주어야 합니다. 『신중하며 정숙하며 가정을 지키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딤후2:5).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신중하며 정숙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따스한 말에 감동을 받지만 남편들은 아내의 말없는 행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니 이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순결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볼이라.』(벧전3:1,2). 여자들의 행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dress code가 나옵니다. 짧은 핫팬츠를 입거나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머리를 치렁치렁 땡거나 몸의 선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은 멋이 아닙니다. 옷은 자신을 가리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와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딤후2:9,10). 믿음으로 단장한 여자들의 모습은 기품이 있고 행동에 절제가 있으며 천박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할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지 make-up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땡고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차려 입는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벧전3:3,4).

- **올바르지 못한 부부 관계는 자녀들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본 자식들은 결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 여기는 것을 보아온 자녀들은 절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녀 교육에 가정 큰 문제는 double standard입니다. 두 가지 권위가 상충하면 자녀는 자기에게 유리한 편을 듭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고 나쁘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올바르지 못한 부부 관계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너희가 금식과 기도예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은 그리하되 다시 서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참지 못하므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7:4-5).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육체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서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성경은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는 것(그것도 동의하에서) 외에는 분방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 금욕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불결하다거나 정욕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과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샘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며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 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런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라.』(잠5:18,19).

● 그리스도인 아내는 덕스러운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덕스런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더 나카느니라.』(잠31:10). 잠언 31장의 덕스런 여인은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이것에 비추면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잠31:12). 교회 식구들이나 집안 식구들이나 남에게 악평을 받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성경은 여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잠9:13), 은혜로운 여자(잠11:16), 아름다운 여자(잠11:22) 하지만 분별력이 없음. 덕스러운 여인(잠12:4), 지혜로운 여자(잠14:1), 다투는 여자(잠21:9), 다투며 성내는 여자(잠21:9,25:24),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잠27:15)-바가지를 굶는 여자. 미운 여자(잠30:23).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호의를 베푸는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잠31:31)

둘째,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최소한 남편보다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이 새벽에 일을 나가면 그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해 먹여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이지만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시는 아버님의 밥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밤중일 때 일어나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잠31:15). 이는 새벽 일찍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자매들이 9시, 10까지 늦잠을 자고 남편은 힘든 일을 하러 나가면서 냉장고에 있는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각자 자신의 해야 할 바를 충실히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셋째, 자기 집안일들을 잘 살피야 합니다. 『자기의 집안일들을 잘 살피고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잠31:27). 주님은 아내에게 가정을 지키라는 직임을 주셨습니다(keepers at home).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피고, 집안 구석구석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helper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잠14:1). 자매들은 자매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매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 튼튼한 지역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바른 교회의 모델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몸 된 신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매님들은 모두 자매로서의 임무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특권과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자매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자매는 훌륭한 위로자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남편에게 아내만큼 훌륭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기가 꺾인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위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위로자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요, 어머니인 자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지위와 동일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위로를 받은 남편과 자식은 결코 위로자 성령에 대해 무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매는 가정에서 기쁨을 줍니다. 여자가 없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찢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찬바람이 돛니다. 자매는 기쁨을 주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물론 남자 같은 성격의 자매도 있고, 애교가 별로 없는 둔감한 자매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을 창출해 냅니다.

셋째, 자매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만큼 훌륭한 선생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보다 더 훌륭한 교사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아버지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콩가루 집안에 아낙네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매님들의 지위는 바로 아이들의 스승이요, 아버지(남편)를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직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넷째, 자매는 가정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별로 감사와 찬양을 받지 못합니다.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것 역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여자가 자기를 드러내느라 남편(아버지)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자매님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지역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빛이 나지 않고, 티가 나지 않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여자는 분명 성령의 예표로서 영광스런 역할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 침례교회들은 제도권 교회와 달리 교회 내에서 자매들의 역할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매들의 조력을 받은 형제들은 훨씬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매들의 그런 수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자매에 대한 시각이 비뚤어져 있거나, 자매님들 가운데 자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비뚤어져 있었던 분들은 모두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힘을 다 할 수 있기를 빕니다.

03.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말씀: 시127:1-5

요절: 시127:3

요즘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식 교육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자식 교육열은 세계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힙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흔히 자녀 양육을 농사에 비유하여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자식 농사를 망쳤다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쏟지만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직접 지으셨습니다. 자식은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자 의무이지만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조차 자식 농사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의 장남 카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아담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셋이란 아들을 낳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 길렀지만 첫째는 망나니요, 둘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키웠지만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은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의해서 형제를 팔아 버리고 거짓말을 했고, 장남은 아버지의 침의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요, 성경의 중심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윗도 자식 농사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는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눈먼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삼하18:5). 주의 말씀에 따르면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일컫는 사무엘의 자식들은 사무엘과 영 판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자식들은 이름도 거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선대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는 많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무속 신앙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대(代)물림은 기독교 신앙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왜 자식 농사에 실패했을까요?

미국의 Bob Jones University의 설립자요, 창시자인 Bob Jones Sr.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으로서 지금도 존경을 받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신앙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배교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천덕 신부라고 유명한 성공회 신부가 계십니다. 이분은 무디 목사님을 계승한 R.A Torrey 목사님의 손자로 더 유명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신앙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배교한 목사에게 불과합니다.

한국인들은 부모가 죽을 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집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회사도 물려주고,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물려 줄 것이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²⁾ 그래서, 신앙도 물려주는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의 교회도 대물림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물려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앙을 물려 줄 수 있다면 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탓 하기를 잘하는 민족성 탓인지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을 선대부터 믿은 신앙이 아니라 당대에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는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대로 순종해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은 자녀 교육을 위해 저술된 성경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을 두려워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시34:11). 다윗은 여러 차례의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핵심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엄숙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곧 백성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문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으로 하여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 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31:12,13).

그렇다면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 **먼저 내가 주님을 두려워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 배웁니다. 어른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잘 모른다고 생

2)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처럼 재벌이 아냐?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나는 편안할텐데!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놈아 그러는 너는 왜 박찬호가 아니냐? 그랬으면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각하지만 아이들은 다 압니다. 7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없는데 아빠가 걱정이예요. 엄마는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 아이는 이미 부모의 신앙을 다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성경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내가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회상하노니 이 믿음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이제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딤후1:5). 사무엘의 어머니는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 버렸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 수잔 웨슬레의 양육을 통해 키워 졌습니다. 어릴 때 아이의 귀에 읽어 준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T.V channel 싸움이나 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이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말씀의 확실성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다져집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힘있게 하시며,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는 때때로 어른들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 **교회의 집회에 함께 참석하십시오.** 아이는 부모와 같은 설교와 같은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대차(generation gap)라는 것은 아이와 부모가 같은 것을 듣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같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같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말라...』(막10:14). 현재 많은 가정들이 자녀와 흠어져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함께 오십시오.

둘째, 부모를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부모를 두려워 하고 내 안식 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레19:3).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망쳐 버립니다. 자식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자식이 아닌 부모도 없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부모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성경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레24:16).

시 죽일지니라.』(출21:17). 오늘날 효도는 도덕법이에요, 윤리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 부모에 대한 효도는 법이요,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붙잡아 가지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도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로, 하거든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신21:18-21).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이 말 안듣는다고 장로들에게 끌고 가 죽게 할 사람은 그다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출20:12).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은 약속있는 첫째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장수의 비결입니다. 부모를 공경(honour)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로 하여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엡6:3).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 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되어야 부모를 모시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거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6:1). 우리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반역과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배교의 물결이 뒤흔드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법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6:1).

다섯째, 부모를 돌보아야 합니다. 복중에서부터 나를 보살피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모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후5:4). 부모를 돌보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18세까지 양육을 해 주었으면 기본으로 18년을 봉양해야 보답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를 더해서 25-30년을 봉양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딤후5:8). 이곳은 노인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자신의 할 일을 정부에 떠 넘겨 버리고 맙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 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한 것이 노인 연금 제도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4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만이 자녀 교육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상대에게 분노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죽도록 맞아도 감사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타일러도 성질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밤 기도하는 것은 매우 확실한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6-11에는 확실한 교육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하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히12:6-11).

우리나라 조상들은 지혜롭게도 서당에서, 학교에서 자주 매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대 교육학이 들어오면서 애들을 때리는 것을 범죄시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애들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이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교육학 전공한 자매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 보더니 학교에서 배운 것 말짱 헛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본 사람들이 학자라고 떠드는 꼴이 더 우스운 형국입니다.(예:루소--> 자기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내 버림).

법이 금한 다 해도 집에서는 애들을 때야 됩니다. 나이 들고 머리가 굵어지면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기 전에 확실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잔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 웨슬레는 17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 내셨습니다. 비결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11시만 되면 설거지고 집안일이고 다 집어치우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째, 2살이 되기 전에 애들을 확실히 잡아 두었다고 합니다. 버릇 없는 애들을 일컬어 ‘부모없는 집 애’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애들이 많이 있는데 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 소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네 혼은 용

서하지 말지니라.(잠19:18)

- 아이의 마음 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22:15)
-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잠23:13)
-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 내리라.(잠23:14)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본문의 말씀인 ‘성나게 하지 말고’란 말씀이 걸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나게 하지 않고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성을 낼 틈을 쥐서는 안됩니다. 죄악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한 다음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하고 나서 그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훈육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스는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부인권론을 주창한 루소도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만든 러셀과 러터 포드도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 곳에 유학을 보내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좀 맞아야 합니다.

-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이렇게 교육받은 형제, 자매들만이 약속있는 첫째 계명을 잘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반복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의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기도하게 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소리내어 읽는 10분의 성경 읽기는 어떤 교육보다 더 확실한 교육의 효과를 준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가르치는 이유는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오늘은 에베소서 6장을 소리 내어 읽으라.)

자녀 훈육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또한 교육도 잘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아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사람들에겐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창18:19).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였습니다. 이삭은 평생동안 단 한번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해 본 적이 없

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해 준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이 날 내가 하는 것같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이다.』(사38:19). 아버지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9:00-10:00까지는 모두 성경을 읽자! 이렇게 제안을 하든, 명령을 하십시오. 출애굽한 세대들의 최대 과제는 그들이 보고 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유난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네 혼을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네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평생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신4:9).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 속에 두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들을 말할 것이며....』(신 6:7)

● **아들을 바로 잡아라(Correct thy children).**³⁾ 아이들은 모두 어리석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바른 교리가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고, 바로 잡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네 아들을 바로 잡으라. 그리하며 그가 네게 안식을 주겠고 참으로 네 혼에 기쁨을 주리라.』(잠29:17). 행동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일생의 기초가 될 만한 생활 습관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 둔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잠 29:15).

잠언 4:1-4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잠 4:1-4).

- The End-

3) 흠정역에서는 correct란 단어를 '징계하라'고 번역 했으나 '바로 잡다'이다.